

### “다현이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초등학교 교사 백종만입니다. 저희 반에 다현이란 9살 짜리 여학생이 있습니다. 4학년 오빠와 배달일을 하는 아빠와 3식구가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무학이십니다. 지금은 음식 배달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였습니다. 다현이는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오가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와 언어발달 장애의 증후가 있으나 병원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동사무소, 시청, 꿈두레마을 등을 돌아다니며 다현이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며칠 전에 포천의료원 소아과에 갔으나 소아정신과 선생님이 안계시고 검사장비도 없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보라는 이야기 밖에 못들었습니다. 성모병원에 전화하니 한 번 상담받고 검사하는데 3-4십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갓 교직에 들어온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다현이를 이대로 방치하기엔 양심이 곱잡습니다. 교육장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고 싶습니다. 방의 무례한 글을 보시고 꼭 좀 도와주시지요. 교사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사 백종만  
연락처 011-9829-2281

## ‘새 경찰, 혁신경찰로 거듭난다’

### 포천署, 제60주년 경찰의 날 행사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지난 21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경찰 창설60년 경찰의 날을 맞아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내 내빈과 경찰관을 초청해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개혁신안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전통경찰관에 대한 묵념, 모범경찰관 및 시민에 대한 포상, 대통령 치사를 경찰서장이 대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경찰 60년사의 발자취와 경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영상물을 직원들에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경찰이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념식후에는 경찰발전을 위해 읍지에서 노력하는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다과회를 마련했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21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경찰 창설 60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다과회 자리에서 김영배 포천경찰서장은 “경찰 60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전 직원이 새출발의 각오를 다져 새 경찰, 혁신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best114@paran.com

### 목회단상

## 고민 해결법



김창성  
대현교회 목사

오늘을 살아가는 아들에게 최대의 관심은 뭘이냐고 물어봐도 money(머니) 즉, 돈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다. 윤희 세계가 경제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를 실패한 대통령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한낱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다.

영어의 (이코노미)를 경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한 동안인의 슬기는 서양인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경제란 한자의 경제(經世濟民)에서 왔는데, 그 뜻은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다.

즉, 경제행위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 사회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유 경제학의 시조(始祖)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도 “자유 경쟁에는 반드시 인간의 공감(共感)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상업이나 회사의 경영 관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경제(經世濟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은 오늘의 세대에 경종이 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제 이익만 챙기지 말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권하신다. 그러면 너도나도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리라고 일러 주신다. 여기에 어긋난 개인주의적 이득만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된다는 사실을 명명하였다.

이것은 상업이나 회사의 경영 관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경제(經世濟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은 오늘의 세대에 경종이 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제 이익만 챙기지 말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권하신다. 그러면 너도나도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리라고 일러 주신다. 여기에 어긋난 개인주의적 이득만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된다는 사실을 명명하였다.

이것은 상업이나 회사의 경영 관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경제(經世濟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은 오늘의 세대에 경종이 되고 있다.

의 원칙이 해당되어야 한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은 오늘의 세대에 경종이 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제 이익만 챙기지 말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권하신다. 그러면 너도나도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리라고 일러 주신다. 여기에 어긋난 개인주의적 이득만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된다는 사실을 명명하였다.

이것은 상업이나 회사의 경영 관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경제(經世濟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은 오늘의 세대에 경종이 되고 있다.

문(의) 031-532-2489

## 포천시 수도사업 경영평가 전국 최우수 행정부 주관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영예

포천시 수도사업소가 2005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상수도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포천시 수도사업소가 격년제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에서 2003년에 이어 2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고객만족을 위해 앞서는 수도사업실현”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수도사업소장을 정점으로 근무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열정과 성의를 다해왔기 때문이라



포천시 수도사업소는 2005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가정집 관동 교통사고 운전자 그 자리서 死亡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경 동두천에서 포천방면으로 운행하던 2.5t 트럭이 선단동 해룡마을 가정집을 들이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고로 해룡마을 가정집이 관통되었으나 다행히 가정집에 사람이 없어 큰 사고는 모면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포천소방서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 수습작업을 실시하고 운전자 신원 파악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지역방법대 선단동자율방법대 대장 이응백

### 선단동민 여러분! 자율방법대 자주 이용해주세요

“포천 최고(最古)의 자율방법대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방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선단동의 선단동자율방법대는 포천동지구대관할로 1984년 오로바이 기동순찰대로 출범, 이듬해인 1985년 당시 포천군 1호로 등록된 역사와 전통,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자율방법대이다.

선단동자율방법대는 현재 이응백(44) 대장을 중심으로 정지석, 신원식 부대장, 조관석 총무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조별 편성에 의해 관내 16개 지역의 방법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원들의 경우 마을 청년부터 통·이장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주로 40대 초반으로 타 지역 방법대보다는 다소 높은 연령을 자랑하고 있다.

방법대 임대는 과거 보종인 등을 세우는 등 까다로웠으나 현재 임원회의를 통해 심사, 영입하고 있다.

이응백 대장은 “자율방법대는 주로 토박이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자율방법대는 토박이뿐 아니라 전입자 누구라도 환영하기 때문에 뜻이 있는 동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역화합을 강조했다.

선단동자율방법대의 경우 매일 1회 가두캠페인을 통해 계도와 홍보, 청소년 선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연말 쌀 나누기 행사를 통한 이웃사랑실현, 선단5리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대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공통점을 안고 자율방법대가 주축이 되어 지역의 각종 활동을 도맡아 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선단동자율방법대의 경우 선단동 청소년선도위원이 전체 30명 중 5명이고 일부마을의 전 현직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장은 현재 선단동자율방법대의 지원과 관련 “올해 지역

에 생활안전협의회가 발족됐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정착을 통해 자율방법대의 든든한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장은 포천시의 재난국 신설과 발맞춰 자율방법대를 적극 활용, 재난대책 운영의 극대화를 건의했다.

“산발적인 재난대응을 하던 시스템을 무전기 등을 활용, 각 지역 자율방법대와의 핫라인을 개설해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근무복의 지속적 지원 등 자율적인 지역방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주길



이응백  
선단동자율방법대 대장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원들에게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어 감사하며 주민들이 자주 찾아주는 자율방법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mmail.net

## 3천여 창수면민 단합으로 지역발전 기대

### 제3회 시민의 날 창수면 선수단 해단식



제3회 포천시민의 날을 맞아 참가한 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지난 20일 해단식을 가졌다.

제3회 포천시민의 날을 맞아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창수면 면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와 지난 20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는 이순환 창수면장을 비롯해 이병욱 포천시의회의원과 기관단체장 및 선수와 감독코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해단식은 종목별 분과위원회에서 출전시 약속한 금메달일 경우 금반지 3돈, 은메달일 경우 반지2돈 동메달일 경우 1돈의 금반지를 인센티브로 약속한대로 씨름 분과위원장 이혜준 감독과 한경민 코치는 출전 선수 11명에게 반지 2돈씩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 창수면체육회 경정수회장은 종목별 분과위원장 선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격려금을 6개 종목 감독에게 각각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정수 창수면체육회장(우정식품 대표)은 환영사를 통하여 “체육회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선수로 출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 체

제3회 포천시민의 날을 맞아 참가한 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지난 20일 해단식을 가졌다.

육·문화진흥발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병욱 포천시의회의원은 축하사를 통해 “체육회임원과 출전선수를 격려했으며 창수면이 씨름과 배드민턴이 종합2위를 차지한 것은 인구비례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볼때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고 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기쁘고 행복한 쾌거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창수면은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창수면 체육회위원을 종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과위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선수선발 훈련 등을 담당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 꽃샘 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고려홍삼꽃세트**  
홍삼꽃 1000g

**꽃샘토종고구리1호**  
토종꿀 2400g  
**꽃샘토종고구리3호**  
토종꿀 1200g

**꽃샘특선봉밀1호**  
잡화꿀 2200g  
**꽃샘특선봉밀2호**  
잡화꿀 1700g

**꽃샘 1호**  
아카시아꿀 1200g  
잡화꿀 1200g

**꽃샘 5호**  
꿀대추차 1000g  
꿀유자차 1000g  
꿀술잎차 1000g

**꽃샘 6호**  
꿀대추차 1200g  
꿀유자차 1200g

**꽃샘 4호**  
영지꽃차  
술잎꽃차 x 600g  
대추꽃차

**꽃샘 기획세트 2호**  
영지꽃차 1200g  
잡화꿀 1200g

(주)꽃샘종합식품(대표이사: 이상갑)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대) FAX.031)541-9933 www.ksfs.co.kr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는 080-541-9920